



분노한 민심 “정권 심판”... “野 200석 안팎 압승”

선택 4·10 총선

▶ 관련기사 2·3·4·5·6·7면

제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전북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계 정당이 200석 이상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 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85~110석,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민주연합 포함)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야권 군소정당은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에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정당 의석 수를 포함할 경우 200~211석까지 가능할 것인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조차 위태로운 그야말로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등 지역에 배정된 28석을 ‘씩씩이’ 해 다시 한번 호남에서의 절대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특히 경선 초반 이른바 ‘비평행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총선 전반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은 물론,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도 한껏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와 달리 ‘정치 초년생’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폭망’ 책임론에 휩싸이며 상당한 정치적 타



환호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MBC·SBS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민주당 단독 국회 ‘과반’ 의석 확보 전망
국힘 참패...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 위태
尹정부 국정기조 전환 예고... ‘격랑 속으로’
오후 11시40분 국힘 95곳·민주 156곳 1위**

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내 3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한동훈 특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관측이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

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표 결과, 이날 오후 11시40분 기준 (개표율 61.13%) 전국 지역구 (254석)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56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95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새로운미래 1곳, 진보당 1곳, 무소속 1곳 등이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개표율 11.53% 기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3.02%,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연합이 26.50%, 조국혁신당 22.47%

%, 개혁신당 3.16% 등이다. 정당 투표는 3%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중 2천966만2천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67.0%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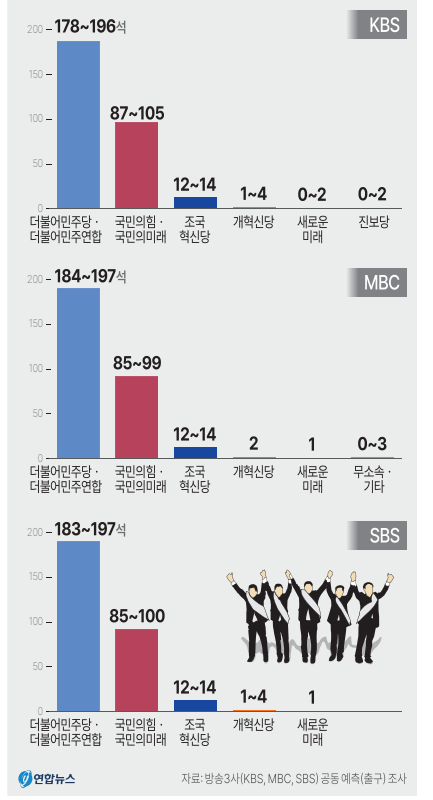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 (66.2%)보다 0.8%p 높고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21대 총선이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 기록을 세운 데 이어, 4년 만인 22대 총선에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3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광주·전남 당선자

선거구	당선자	정당
동남갑	정진욱	민주
동남을	안도걸	민주
서구갑	조인철	민주
서구를	양부남	민주
북구갑	정준호	민주
북구를	전진숙	민주
광산갑	박균택	민주
광산을	민형배	민주
목포	김원이	민주
여수갑	주철현	민주
여수를	조계원	민주
순천광양곡성구래갑	김문수	민주
순천광양곡성구래을	권향엽	민주
나주 화순	신정훈	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민주
고흥보성장흥진	문금주	민주
해남 완도 진도	박지원	민주
영암 무안신안	서삼석	민주

4.10 총선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